

## 자매들을 위한 공과

### 제11과

##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의 정상적인 생활 — 염치와 정숙으로 자신을 단장함

성경: 딤편 2:9-15

### I.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아야 한다 — 딤편 2:9-15.

- A. 자신을 단장함 —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차림에 염치와 정숙으로 자신을 단장하기 바랍니다. 요란하게 꾸민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에게 어울리도록, 선행으로 단장하기 바랍니다.” — 딤편 2:9-10.
1. 자매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자신의 몸을 가려야 한다. ‘단정한 옷차림’이란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매들의 본성과 위치에 알맞은 것을 가리킨다.
  2. 헬리어에서 ‘옷차림’이라는 단어는 태도, 곧 품행을 암시하고 있다. 자매의 품행은 주로 옷차림에서 표현되는데, 그 품행은 마땅히 성도의 위치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3. 염치로 번역된 헬리어 단어는 직역하면 수줍음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고상한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제한받거나 통제받는 것이며(빈센트), 나서거나 지나치게 용감하지 않고 여인의 예절을 지켜 온화한 것을 암시한다.
  4. 정숙은 맑은 생각, 자제심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신을 냉철하고 신중하게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은 그들의 품행인 이 두 가지 미덕—수줍음과 자제심—으로 옷 입어야 한다.
- B. 배움 — “여자는 매사에 복종하면서 조용히 배우십시오.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그다음에 하와가 지어졌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 딤편 2:11-14.
1. ‘조용히’는 ‘잠잠히’를 의미한다. 자매들이 조용히 배우는 것과 온전히 복종하는 것은 여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교회 안에서 자매들은 주제넘게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다.
  2. 하와가 뱀에게 속은 것(창 3:1-6)은 아담을 머리의 권위로 취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자신의 머리를 덮지 않은 채 악한 유혹자를 직접 접촉했기 때문이다.
  3. 이것이 사도가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이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분명한 근거이다. 사도는 자매들에게 조용히 배우고 매사에 복종하라고 지시했다. 남자를 머리의 권위로 취하는 것이 여자에게 보호가 된다.
- C. 그들의 구원 — “그러나 여자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산다면, 해산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 딤편 2:15.
1. 해산은 일종의 고난이다. 고난이 있을 때 타락한 사람은 범죄하는 데서 제한받고 보호받는다.
  2. 15절에서 바울은 또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언급한다.
    - a. 믿음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것이고(요 1:12), 사랑은 그분을 누리기를 위한 것이며(요 14:21, 23), 거룩함은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 b.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히 11:6),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요 14:23), 거룩함으로 그분을 본다(히 12:14).

### II. 염치(modesty)와 정숙(sobriety)이라는 두 미덕은 교회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 A. 이 공과에서 우리는 특히 여성의 가장 중요한 미덕인 염치에 관하여 부담이 있다.
- B. 어떤 가정들에서는 염치에 대해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다. 그 대신 소년들과 소녀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키우거나 가르친다.
- C. 염치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다르게 강조되어야 할 미덕이다.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서 ‘염치’라고 번역된 헬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수줍음, 즉 고상한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제한받거나 통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1. 염치라는 미덕과 관련된 말은 수줍음(shamefacedness)이다. 수줍어하는 것은 염치가 있는 것이고, 부끄러운 느낌을 갖는 것이며, 어떻게 부끄러움을 보이는지를 아는 것이다.
  2. 자매는 교회 집회에서 말할 때 염치를 지니고, 즉 어느 정도의 수줍음을 지니고 말해야 한다.
  3. 염치는 여성에게 커다란 안전장치이며 보호이다. 소녀들을 소년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다.
  4. 소년들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들의 몸을 노출할 수 있지만, 소녀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보호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보호가 없으면, 음행의 길이 열릴 수 있다.
  5. 만일 어떤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염치라는 미덕을 가지고 있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남자들과 합당하지 않은 어떤 관계에도 연루되지 않을 것이다. 여자들이 합당하게 자신을 가리고, 필요한 염치 곧 수줍음을 지니고 있을 때, 이성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 D. 교회생활 안에 있는 자매들은 모두 염치라는 미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 자매들은 염치의 원칙에 따라 옷을 입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사람의 몸을 노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여자가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은 염치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다.
  3. 자매는 단지 물질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 윤리적, 도덕적, 영적으로도 머리를 덮개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염치이다.
  4. 염치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여성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덮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E. 자매들은 결코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젊은 자매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1. 그들은 주의해서, 악한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들의 거룩한 몸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몸은 하나님께 분별되었고, 이제 성령의 성전이다 - 고전 6:18-19.
  2. 젊은 여자가 이렇게 자신의 몸을 보존하려면 먼저 염치가 필요하다.
  3. 모든 젊은 자매들은 악한 이 시대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가리기 위한 하늘에 속한 외투를 입어야 한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보존될 것이다.
- F. 염치와 함께, 자매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숙이다. 어떤 자매가 염치를 실행할 때, 정숙할 필요가 있다 - 딤후전 2:9.
1. 자매는 결코 어리석어서는 안 되고, 맑은 생각을 가져야 하며 신중해야 한다. 자매는 사물들에 대하여 분명해야 하며 예리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 비교 잠 11:22.
  2. 자매는 조용해야 하나 정숙함이나 분별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 - 딤후전 2:11.
  3. 자매들은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교회 집회들에 참석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이 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냉철한 이해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은 염치를 지니는 것과 함께, 바울이 말한 대로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게 될 것이다 - 딤후전 2:15.
  4. 그들은 어리석은 방식, 즉 지식이 결여된 방식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그들은 지식과 이해와 분별이 충만한 방식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자매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자매들에게로 전환한다. 그는 ‘마찬가지로’라는 말로 이 절을 시작한다. 이것은 8절의 “나는 ... 바랍니다.”와 관련된다. 그것은 어디서나 기도하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말이 형제들에게는 물론 자매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 자신을 단장함

디모데전서 2장 9절은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차림에 염치와 정숙으로 자신을 단장하기 바랍니다. 요란하게 꾸민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라고 말한다. ‘단정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매들의 본성과 위치에 알맞은 것을 가리킨다. 헬라어에서 ‘옷차림’이라는 단어는 태도, 곧 품행을 암시하고 있다. 자매들의 품행은 주로 옷차림에서 표현되는데, 그 품행은 마땅히 성도의 위치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염치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직역하면 수줍음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고상한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제한받거나 통제받는 것이며(빈센트), 나서거나 지나치게 용감하지 않고 여인의 예절을 지켜 온화한 것을 암시한다.

정숙은 맑은 생각, 자제심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신을 냉철하고 신중하게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은 그들의 품행인 이 두 가지 미덕—수줍음과 자제심—으로 옷 입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에게 어울리도록, 선행으로 단장하기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공경,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을 가리키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항목이다.(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4장, 36-37쪽)

### 그들의 구원

이 공과에서 나는 특히 여성의 가장 중요한 미덕인 염치에 관하여 부담이 있다. 어떤 가정들에서는 염치에 대해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다. 그 대신 소년들과 소녀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키우거나 가르친다. 염치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다르게 강조되어야 할 미덕이다.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염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직역하면 수줍음, 즉 고상한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제한받거나 통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염치라는 미덕과 관련된 말은 수줍음이다. 수줍어하는 것은 염치가 있는 것이고, 부끄러운 느낌을 갖는 것이며, 어떻게 부끄러움을 보이는지를 아는 것이다. 자매가 교회 집회에서 말할 때 염치를 지니고, 즉 어느 정도의 수줍음을 지니고 말해야 한다.

염치는 여성에게 커다란 안전장치이며 보호이다. 소녀들을 소년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다. 소년들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들의 몸을 노출할 수 있지만, 소녀들은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보호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보호가 없으면, 음행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염치라는 미덕을 가지고 있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남자들과 합당하지 않은 어떤 관계에도 연루되지 않을 것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자가 합당하게 자신을 가리지 않거나 필요한 염치 곧 수줍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성 관계에 쉽게 연루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염치나 수줍음으로 인해 그녀는 이성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교회생활 안에 있는 자매들은 모두 염치라는 미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자매들은 염치의 원칙에 따라 옷을 입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사람의 몸을 노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여자가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은 염치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다. 자매는 단지 물질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 윤리적, 도덕적, 영적으로도 머리를 덮개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염치이다. 염치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여성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덮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생활 안에서 형제자매들은 교통 가운데 서로 간에 아주 많은 접촉을 갖는다. 그러한 교통 안에서 자매들에게는 염치로 알려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영적인 덮개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제들을 접촉하는 모든 것에서 자매들은 염치의 ‘외투’로 자신을 덮어야 한다. 이것은 커다란 안전장치이며 보호이다.

자매들은 결코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젊은 자매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들은 주의해서, 악한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들의 거룩한 몸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몸은 하나님께 분별되었고, 이제 성령의 성전이다. 젊은 여자가 이렇게 자신의 몸을

보존하려면 먼저 염치가 필요하다. 나는 모든 젊은 자매들에게 악한 이 시대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가리기 위한 하늘에 속한 외투를 입을 것을 조언한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분은 처녀인 젊은 자매와 결혼할 합당한 형제를 안배하실 것이다. 거듭거듭 나는 젊은 자매들이 염치의 외투를 입을 것을 당부한다. 자매들은 항상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성으로서 그들은 자신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염치이다.

염치와 함께, 자매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숙이다(딤후 2:9). 어떤 자매가 염치를 실행할 때, 정숙할 필요가 있다. 자매들은 결코 어리석어서는 안 되고, 맑은 생각을 가져야 하며 신중해야 한다. 자매들은 사물들에 대하여 분명해야 하며 예리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자매들은 조용해야 하나 정숙함이나 분별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 자매들은 정숙하게 조용해지지, 어리석게 조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자매가 자매로서 조용하며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지 않는 것을 훈련하려면 내적으로 예민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녀의 영적인 하늘은 구름이나 스모그가 없이 청명해야 한다. 그럴 때 그녀는 분명하며 주의 깊고 신중하게 될 것이다.

염치와 정숙이라는 두 미덕은 교회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자매들은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교회 집회들에 참석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이 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냉철한 이해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은 염치를 지니는 것과 함께, 바울이 말한 대로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딤후 2:15)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어리석은 방식, 즉 지식이 결여된 방식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그들은 지식과 이해와 분별이 충만한 방식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4장, 38-41쪽)

자매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자신의 몸을 가려야 한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자매들에게 명령한다.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차림에 염치와 정숙으로 자신을 단장하기 바랍니다. 요란하게 꾸민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단정한’이란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매들의 본성과 위치에 알맞은 것을 가리킨다. 헬라어에서 ‘옷차림’이라는 단어는 태도, 곧 품행을 암시하고 있다. 자매의 품행은 주로 옷차림에서 표현되는데, 그 품행은 마땅히 성도의 위치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염치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직역하면 수줍음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고상한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제한받거나 통제받는 것이며(벤센트), 나서거나 지나치게 용감하지 않고 여인의 예절을 지켜 온화한 것을 암시한다. 정숙은 맑은 생각, 자제심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신을 냉철하고 신중하게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지 교회에 있는 자매들은 그들의 품행인 이 두 가지 미덕—수줍음과 자제심—으로 옷 입어야 한다.(사사기 라이프 스타디, 8장, 52쪽)

### 단정한 옷차림에 염치와 정숙으로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차림에 염치와 정숙으로 자신을 단장하기 바랍니다. 요란하게 꾸민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에게 어울리도록, 선행으로 단장하기 바랍니다. 여자는 매사에 복종하면서 조용히 배우십시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자매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시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염치를 느끼라는 것이다. 염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의식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자매를 보호한다. 염치가 있어 부끄러움을 알고 느끼는 자매들은 자연히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의 부끄러운 느낌에 상반되는 옷을 입지 말라. 여러분은 반드시 정숙을 훈련해야 한다. (염치와 반대되는) 천박한 옷을 입지 말라. 천박함은 정숙과 상반된다.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한다. 모든 자매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어떤 옷이 단정한 옷인지를 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단정하다고 여기는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옷을 입느냐고 말하는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수준이 이교도들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염치와 정숙을 갖는 것을 배워야 하며, 무엇이 단정한 옷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은 “요란하게 꾸민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라고 말한다. 여기서는 특별히 땡은 머리를 지적하여 말한다. 베드로는 자매들이 자신의 머리에 행하는 많은 유행들을 언급했다. 땡은 머리는 머리카락을 포도나무의 줄기같이 만드는 것이다. 여자들은 벌써 이천 년 전에도 유행에 관심이 있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땡으면 매우 맵시가 난다고 생각한다. 사실 멀고 먼 옛날 이천 년 전부터 그런 머리 모양이 있었다. 여기서는 또한 값비싼 옷을 언급한다. 모양은 같으나 값이 다른 옷이 있다면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값비싼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

자매들은 반드시 자신의 의복이 단정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울과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 또한 어떤 자매에게도 경솔하고 제멋대로 무심하게 의복을 입으라고 할 의도가 없다. 우리는 마땅히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지 말아야 하고, 그와 반대로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한다. 자매들은 자신의 옷장을 합당하게 관리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자매들은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의 일반적인 재료들을 사용한 의복들로 옷장을 질서 정연하게 정돈해야 한다. 어떤 자매도 결코 의복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자매들은 의복에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화려한 옷이나 값비싼 옷을 너무 관심한다. 다른 어떤 자매들은 자신의 의복의 깔끔함과 청결함을 주의하지 않고 옷을 입는 것에 너무 경솔하다. 이것은 그러한 자매들이 영성한 사람임을 보여 준다. 여자의 의복은 그 사람의 참된 성격을 반영한다. 어떤 이가 자신의 차림새나 청결함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은 느슨하고 영성하며 경솔한 것이다. 우리의 의복은 단정하고 깨끗하며 청결해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단순해야 하지만, 또한 청결해야 한다.(워치만 니 전집, 50권,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하), 62-63쪽)

### **연구 문제**

1.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언급한 염치 또는 수줍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러한 염치가 자매들에게 보호가 되는가?
2. 어떻게 그러한 염치가 특별히 자매들의 장식과 연관되는가?
3. 자매들이 염치를 실천할 때, 왜 정숙도 필요한지를 설명하라.

### **참고 도서 및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전후서 라이프 스타디, 4장; 사사기 라이프 스타디, 8장; 워치만 니 전집, 50권,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하), 37장